“물 폭탄 비켜가나…” 조마조마

북태평양 기단이 장마전선 남하 막아

광주·전남 주민 연휴 내내 마음 졸여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인 17일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물 폭탄’걱정에 온종일 마음을 졸였다. 강원도 등 중부권의 끔찍한 ‘수마’가 이 지역을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막상 비가 내리지 않자 ‘혹시 장마전선이 비켜가지나 않나’ 기대하기도 했다.

◇비 안 와서 더 불안한 지역민들=기상청은 17일 광주·전남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50mm까지 오겠다고 예보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4.5mm를 비롯, 대부분의 지역이 10mm 내외의 강우량만 보이고 있다. 지리산에는 64.5mm가 내렸지만, 이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양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대부분 외출을 삼가고 TV와 라디오의 실시간 기상속보에 귀를 기울였지만, 비가 오지 않자 의아해 했다.

특히 제 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던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선근마을 60가구 150여명의 주민들은 라면 등 생필품을 미리 구입하고, 인근 벌교고등학교로 대피할 준비를 마친 채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상습침수 구역인 여수시 소라면 덕양2구 조형민(45)이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면서 “한바탕 ‘전쟁’을 앞둔 군인들의 심정같다”고 말했다.

◇잠 못 잔 공무원=광주시와 전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밤부터 구조보트와 펌프 등 1만3천400점을 확보하고, 대원 1천여명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광주댐과 담양댐 등은 저수율을 70~80%로 낮춘 채 기상청의 예상강수량을 바탕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지자체도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며 기상속보를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바짝 조였다.

재난대책본부는 또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비닐막을 씌우고 주변 제방에 모래 주머니를 추가로 쌓는 등 장마전선을 ‘맞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모습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 역시 이날 직원들을 동원해 등산객의 입산을 전면 통제했다.

◇비 언제 올까=기상청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번 장마가 워낙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현재 이틀 뒤의 예상 강우량도 언급을 회피하는 등 ‘신중’ 하고도 ‘방어적’인 예보를 하고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쪽의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예상과 달리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장마전선 남하가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차가운 오호츠크 기단의 경계면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약화를 틈타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두 기단이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중부지방에 정체됐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그러나 18일부터는 남부지방이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어 적게는 40~80mm, 많게는 12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장마전선이 19일에도 계속 머물며 더욱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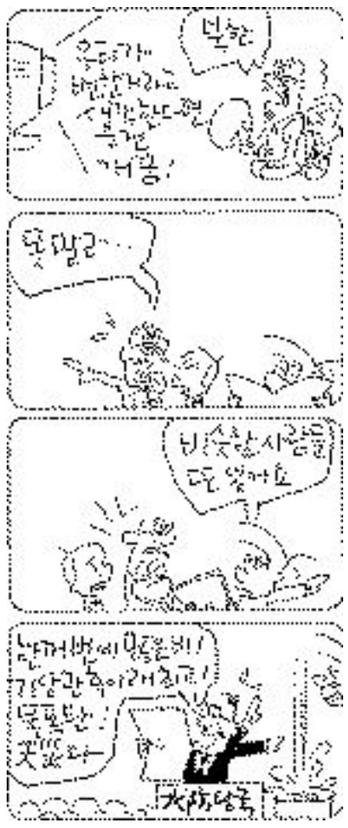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의 남북 진동이 심해 장마의 끝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0일까지 비가 내리다가 잠시 주춤한 뒤 23일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한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또 무너질라…” 지난 10일 태풍 에위니아가 쏟아 부은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 대웅전 뒷산. 도림사 승려들은 장마전선이 남하하기 시작한 17일, 또 다른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마음 졸여야 했다.

/곡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참 〈6882〉 김종두



포스코 본사 공권력 투입

경찰-노조원 ‘무력 충돌’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이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사 건물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노조원들의 무력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11시께 포스코 본사를 점거중인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진압 대원들을 다시 투입했으나, 노조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작전개시 3시간만인 17일 새벽 2시 진압작전을 중단했다.

포스코 본사 12층 중 1~3층을 확보했던 경찰은 이날 텅 빈 4층을 접수한 뒤 곧바로 계단을 통해 5층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소방대원과 함께 노조원들이 계단에 쌓아놓은 의자를 걷어내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가스를 이용해 쇠파이프를 통해 불을 뿜어내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로 인해 경찰 4명이 화상을 입었고 일부 노조원이 다쳤다.

경찰은 이날 진압작전을 통해 4층과 5층 계단 사이에 쌓여있던 의자 100여개를 제거했으나, 경찰 부상과 화재 위험 등 대형 참사를 우려해 진압 작전을 중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조원들의 ‘불’ 공격을 막기 위해 방열복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뒤 17일 또다시 포스코 본사 건물에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계속되자 일부 노조원들이 농성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현재 농성장에는 1천여명의 노조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스코 본사 주변에 6천9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수해보험’ 첫 수령자 나왔다

9,800원 내고 4일만에 1,500만원 받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판매된 이후 지난 13일 최초의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소방방재청이 17일 밝혔다.

수령자는 경북 예천군의 신모씨. 신씨는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이 전파됐지만 본인 부담금 9천800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까지 합쳐 월 총 보험료 2만8천원짜리에 보험 가입, 불과 4일 만에 1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동부화재와 풍수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주택·비닐하우스·축사의 눈·비·바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전남 곡성, 경북 예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등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02)2262-1472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휴가철 강·절도 기승

문단속 허술 틈타… 성추행 사건도 잇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을 노리는 절도와 휴가비 마련 등을 위한 강·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열대야 등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문단속이 허술한 틈을 탄 성추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R고시원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 방 안에 있던 한모(여·22)씨를 위협한 뒤 한 차례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웬 남자가 창문으로 들어온 뒤 방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양 손목을 묶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밤 9시께 북구 용봉동 한 주택에 20대 남자가 들어와 B(여·23)씨를 위협한 뒤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께는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C(여·31)씨 집에 가스검침원을 사칭한 20대 남자 2명이 침입,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영광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승용차를 임대한 뒤 영광군 일대를 돌며 빈집만 골라 1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절도)로 장모(18·영광군 백수읍)군 등 2명을 지난 12일 구속했다.

여수경찰도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여수시 송모(여·20)씨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빈집을 상대로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5·여수시)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음주 운항 ‘얌체 선장’ 선원들이 신고

쌍나팔

○…선원들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자신만 홀로 외출, 술을 마시고 승선해 운항하던 얌체(?)선장이 선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

○…여수해양경찰은 16일 새벽 3시께 여수 앞 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1% 상태로 1시간여 동안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887t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 파이오니아호를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문모(40·울산시 북구 하봉동)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 내 중흥부두에 정박하던 중 선원들과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선원들에게는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고 홀로 외출해서 술을 마시고 16일 새벽 3시께 배를 몰고 나간 것.

○…문씨는 결국 앙심을 품은 선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홧김에 그런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강의내용	TOEIC	TOEFL	THE (K.) TIMES	SCREEN ENGLISH	CNN, BBC, 회화	번역 영⇔한	vocabulary	중국어		일어
강 사	JAMES PARK	DANIEL CHO	DAVID RYOO	고권일	KAREN YOUNG	DANIEL CHO	서삼종	장 틴	문 희	박영주
약력	고대영어교육과Golden west college	전남대 졸 영문학석사 (번역 전공) 1급 번역사	전남대 졸 영문교육학석사 1급 번역사	전남대 졸교원 연수원 영어 담당 전)광주 문화 외국어 학원장	usc multimedia Journalism 석사	전남대 졸영문 학석사 (번역 전공) 1급 번역사	한국외국어대 졸 서울 유명학원 voca(어휘) 강사	중국연대사범대 졸 한국어과 졸업 한국번역연구원 번역담당(한족)	호남종의대 졸 중국 남개대 중문과 석사 중국거주10년	동경외국어 전문학교 일한통역과 졸 일본거주 10년
7:00-8:30	LONGMAN TOEIC	TOEFL+α			회 화		TOCA: 토익 어휘	회화(조중급)	HSK	회 화
9:00-10:30	LONGMAN TOEIC	TOEFL+α	THE TIMES	SCREEN ENGLISH	SCREEN MOVIES		TOCA : 토익 어휘	회화(고급)	회화(조중급)	회 화
10:40-12:10	Tomato TOEIC		THE K.TIMES	SCREEN MOVIES	CNN, BBC	영⇔한 번역+α	TOCA : 토익 어휘	HSK	회화(고급)	JPT
12:20-13:50					회 화					
14:00-15:30	Tomato TOEIC		THE K.TIMES	SCREEN ENGLISH	SCREEN MOVIES	영⇔한 번역+α	중고어휘총정리 1개월 마스터	회화(고급)	HSK	회 화
15:40-17:10	LONGMAN TOEIC		THE TIMES	SCREEN MOVIES	CNN, BBC	영⇔한 번역+α	중고어휘총정리 1개월 마스터	CPT	회화 (조중급)	JPT
17:20-18:50	Tomato TOEIC	TOEFL+α	THE TIMES	SCREEN ENGLISH	회 화		중고어휘총정리 1개월 마스터	회화(조중급)	회화(고급)	JLPT
19:00-20:30	LONGMAN TOEIC	TOEFL+α			CNN, BBC		TOCA : 토익 어휘			
비고	◆ 주의 사항 : ① 전 강좌 정원제, ② 전 강좌 테스트 후 반 편성 (자격 점수 제출 인정) ③ 월 수 금 / 화 목 토 수업 ④ 번역 중급 강의는 2개월 후 번역 실무 투입									